

축산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 운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서론

북한은 1990년 이후 계속 정체 내지는 붕괴직전에 있음. 식량사정은 악화일로에 있고 최근에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1946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위기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근본적으로 집단농장체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구소련과 동구권, 중국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지원 중단과 교역규모의 대폭 감소, 그리고 최근의 빈번한 기상재해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축산발전을 위한 남북 축산분야 협력도 현재 회생 불가능한 북한 농업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식량난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축산분야를 포함한 협력의 궁극적 목표가 우리 농업과 동시에 북한 농업도 함께 발전을 도모한다기 보다는 북한의 식량난을 타개하는데, 축산물 소비가 식량소비와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농업분야 협력이 남북한 관계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협력분야보다도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93년 이후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북한 농업 전반을 붕괴시켜 놓았으며, 식

량사정의 연이은 악화로 가축이 대량 도살되어 축산분야 발전이 과거로 후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지난 해보다 사정이 더 악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농업분야 협력이 가장 쉬우면서도 북한 당국이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분야로 보이기 때문에 새정부가 탄생하는 금년부터는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 축산업 현황

가. 축산물 생산 현황

축종별 지역 분포는 협동농장의 입지와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전문화된 축산반이 구성되고 있다. 특히 사료공급에 따른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축종을 배치하고 있다.

돼지는 축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 특히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등 주로 서부지역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다. 북부와 산간지대의 시·군보다 주민 밀도가 높고 농업생산이 높은 지역과 평야지대 및 중간지대의 시·군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는 것은 잡식인 돼지의 먹이로 공업

〈표 1〉 FAO에 따른 북한의 가축사육 두수

(단위 : 천두, 천수)

	1989~91	1993	1995	1996
소	1,293	1,300	1,350	1,350
젖 소	37	38	40	40
돼 지	3,215	3,300	3,350	3,350
닭	21	22	23	23
양	385	390	395	395
염 소	295	300	305	305

자료 : FAO Production Yearbook Vol 50. 1996

부산물과 생활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축 사육두수는 현재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자료 출처별 두수의 변화가 크다.

FAO자료에 의하며 축종별 사육두수는 1990년 이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표 2〉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가축 사육두수는 1980년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1년도 기준으로 소 950천두(유우 8.9천두 포함), 돼지 2,000천두, 가금 2천만수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나 FAO의 자료보다는 낮게 평가되었고, 이는 남한의 사육두수에 비하여 소의 경우 54.1%, 돼지 39.6%, 가금 26.3%로 낮은 수준이다.

3. 남북한 축산부문 협력방안

현재 축산부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량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의 단기 지원을 위한 협력은 물론 북한 축산업을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단기 축산물 협력방안

1) 분유 지원방안

북한의 유아·어린이가 약 360만명이라고 추산되는데, 이 중 많은 어린이들이 기근으로 영양

결핍에 걸려 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영양소와 에너지를 분유지원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까지 민간 차원에서 약 500톤의 분유가 지원되었다. 국내 우유 소비감소와 모조분유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산 분유의 재고가 적정량을 초과하는 경우 분유의 재고를 지원할 수 있다.

2) 쇠고기 지원방안

현재 사육두수의 증가와 수입쇠고기 쿼터로 공급량이 증가한 반면, 위생문제, 경기부진 등으로 소비증가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소값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목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큰 수소를 무제한 구매하고 있다. 1997년 7월 현재 소 65천두를 구매하여 12천톤의 구매육 재고가 있다. 1인당 200g씩 2회 지원할 경우 약 1만톤의 지원이 가능하다.

남한의 쇠고기 자급율은 1996년에 53%이며 수입개방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북한에 지속적인 축산물 공급을 지원할 경우 수입축산물에 의하여 지원물량을 충당해야 할 것이다.

국제 쌀 시장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수입물량이 국제 쇠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국제시장으로부터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중·장기적 협력방안

북한의 악화된 내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식량 지원의 일환으로 단기적인 축산물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축산업 재건을 위한 축산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산물 수요 증대에 대비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축산업의 실태는 우리 나라의

〈표 2〉북한의 가축사육두수

(단위 : 천두, 천수)

구 분	1953	1960	1964	1975	1979	1982	1984	1991
소	506 (0.6)	672 (48)	703 (-)	810 (-)	650~720 (-)	680~730 (-)	1,000 (-)	950 (8.9)
돼지	544	1,123	1,441	1,570	2,400~2,800	2,750	2,800	2,000
가금	1,862	4,535	6,108	-	-	-	-	-
양	20.7	105	157	-	310~360	375	-	300
염소	4.4	79	186	-	240~260	250~265	600	250

주 : () 안은 유우 두수일
 자료 : 1) '75년까지는 연도별 조선중앙년감
 2) '79년부터는 Trigubenko, The Problem of Animal Production Development in North Korea, 통일에 대비한 북방권 축산기술과 그 대응전략, 국제세미나 자료집, 강원대학교, 1993

1960년대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장기적인 축산 부흥계획은 위축된 축산을 부흥하기 위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축의 양적증산을 위한 도축의 제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 사료대책으로서 가축사료의 절대량을 확보하기 위한 유희지 및 산지 개발에 의한 증산·활용 방안이 계획되어 대기축의 경우 기본 번식두수와 중소가축의 증축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의 축산발전 대책은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 있었던 증산계획과 현재의 축산기술을 북한에 적용하여 생산성 증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협동농장이나 국영목장의 일정 규모를 유지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동농장이나 국영목장의 소유권을 분할할 경우 소규모·영세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축산의 경우 일정이상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기업형 목장경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소 및 젖소의 개량을 위해서 먼저 소의 혈통 등록사업을 착수, 소개체의 생산성 증대 기반을 마련하되 계획적 교배를 고려하여 정액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량 종축의 생산 보급과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 목장을 중심으로 증축개

량, 번식장려 등을 위하여, 도별 1개소씩 송아지 번식목장을 집중 육성하여 송아지의 생산기지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사양프로그램과 소규모의 배합사료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축 뿐 만 아니라 중소가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 축산 생산기반 지원

초단기적 축산물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회성 지원은 소요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며, 지속적인 공급은 현실적으로 보아 우선 순위상, 예산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영·협동농장이나 부업축산의 사육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단기적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 축산물 생산기반도 식량곡물과 같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료곡물과 조사료의 조달이다. 남한으로부터의 사료곡물 및 조사료의 지원은 남한도 사료곡물의 대부분과 조사료 자급도가 55%로 낮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료곡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료작물용 종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의 경사 18도 이하의 산지 167천 ha가 다락밭으로 개발하여 식량생산을 위하여 이용되었

초단기적으로는 축산물 지원과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축산생산기반의 지원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사료곡물 및 조사료의 조달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용가능한 산지 및 다락밭을 사료포 및 초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료작물용 종자의 공급과 기자재 및 기술이 지원되어야 한다.

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거의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사료포로 이용하여 사료작물의 재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료곡물의 확보이다.

북한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의 협동농장의 사료포와 산간 초지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 초지상태의 토지로 파악된 1,066천 ha는 산림이 완전히 파괴된 지역으로 재조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일부를 초지 및 방목지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생산비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돼지, 닭 등 육류의 생산기간이 짧고 회전율이 높은 축종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돼지의 경우 종돈과 모돈(닭의 경우 초생추)를 직접 공급하여 협동농장에서 자연교배 함으로써 자돈을 생산, 개인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대가축의 경우 소, 젖소의 정액을 공급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현재 사료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축의 직접지원은 성과가 낮을 것이다.

4. 결 론

북한의 축산업은 1990년 이후 거의 정체 또는 퇴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식량사정은 최악의 위기 국면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식량사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료곡물의 생산은 제한될 것으로 보아 북한 축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축산물 수급현황은 1996년 기준 1인당 11kg의 육류를 소비하는 것으로 공식 보고되고

있으나 탈북자나 다른 자료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1~2kg의 육류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북한에서 축산물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자체적으로 원활한 축산물 공급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남한보다 육류 및 우유의 소비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축산물 선호도가 높아져 수요가 증대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구매력이 낮아 축산물의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육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축 및 종축의 도축이 성행되어질 경우 사육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 지원이 고려될 수 있으나 축산물이 식량곡물과 같은 필수품이 아니므로 축산물의 생산기반이 확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는 우선순위가, 예산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단기적으로는 축산물 지원과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축산생산기반의 지원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사료곡물 및 조사료의 조달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용가능한 산지 및 다락밭을 사료포 및 초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료작물용 종자의 공급과 기자재 및 기술이 지원되어야 한다.

남북한 축산물의 자급을 장기적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급변 통일시의 단기적 지원정책 보다도 북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고는 '98 한국축산학회 춘계 심포지움에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IMF/WTO 체제하의 한국 축산과 남북 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중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편집자주>...◇ **養豚**